

올해도 SUV가 대세

현대 싼타페 지난해 10만대 팔려 돌풍
 팰리세이드 계약대수 5만2천대 ...9개월 대기
 쌍용 렉스턴 판매량 29% 늘어
 기아차 쏘렌토 작년 6만7000대 팔려
 마세라티 등 수입차도 앞다퉀 SUV 시장 도전장



싼타페



마세라티 르반테

국내 SUV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가 지난해 연간 10만대 판매 돌풍을 일으키더니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차를 인도받는데 9개월이나 기다려야할 정도다.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도 전년보다 판매량이 29%나 늘어났고 8년 만에 완전히 변신한 정통 오프로더 코란도도 본격적 SUV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아차도 전종의 강자 쏘렌토를 내세워 SUV 시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입차들도 앞다퉀 SUV를 출시하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SUV는 '팰리세이드'로, 동급인 대형 뿐 아니라 중형·소형 SUV, 중·대형 세단 소비자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한해 판매량이 1만대를 넘기기 힘든 대형 SUV인데도, 2월 중순을 기준으로 계약대수가 5만2000대를 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량도 1만1672대로, 그랜저(1만7797대), 싼타페(1만4024대)에 이어 현대차 중 3위다. '국민차'라는 쏘나타(1만221대)보다 많이 팔렸다.

중형 SUV 싼타페도 지난해 10만7202대가 팔리며 국내 SUV시장 최초 '10만대 클럽'에 가입한 이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서도 1만4024대 팔리며 SUV 중 1위다. 준중형급 SUV인 투싼도 2월까지 628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5579대)보다 판매량이 늘었다.

현대차는 SUV 돌풍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시장 판매량(5만3406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쌍용차도 렉스턴 스포츠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시장에서 렉스턴 스포츠 칸을 포함한 렉스턴 스포츠는 3413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같은 기간(2644대)보다 29.3% 증가했다. 2월까지 누적 판매량(7715대)은 전년(5257대)에 비해 46.8%나 급증했다.

렉스턴 스포츠의 선전에 힘입어 쌍용차 전체 내수

판매도 1년 전과 비교해 7.2% 늘었다.

쌍용차는 여세를 몰아 최근 4년 동안 3500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신형 코란도까지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자동차업계 내수 판매 3위를 지킨다는 전망이다.

기아차도 전종의 강자 쏘렌토를 앞세워 시장 수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아차 쏘렌토는 지난해 6만7200대가 팔리며 기아차 판매량 2위에 오를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텁다. 한국GM의 SUV 트랙스도 지난 1~2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같은 기간보다 11.8% 뛰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을 SUV가 주도하면서 수입차도 앞다퉀 SUV를 내놓고 있다. 인피니티 코리아는 'QX50'의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더 올 뉴 QX50'의 국내 판매에 들어갔고 푸조도 2019년형 푸조 2008 SUV, 3008 SUV 그리고 5008 SUV를 대상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마세라티도 럭셔리 SUV 르반테를 무이자 금융리스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SUV 시장 공략에 공을 쏟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도 지난해 판매량이 1년 전보다 9.7% 늘면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팰리세이드



렉스턴 스포츠 칸



쏘렌토

지난해 미국산 수입 승용차 점유율 국내 판매 5만대 넘어서

“미국, 한국차 수입제한 부당”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5만대를 넘어섰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한국 자동차에 수입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을 분석한 결과, 판매 1위는 독일산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11만6795대, 금액 기준으로는 52억6000만 달러(약 5조9595억원)로 집계됐다.

2위는 미국산 승용차로 판매 대수는

8.2% 증가한 5만2539대를 기록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17억7000만 달러였다.

이어 일본(3만411대, 11억8000만 달러)과 영국(2만2812대, 10억70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 국적별로는 미국계(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승용차가 3만789대로 독일계(15만3626대)와 일본계(4만5473대)에 이어 3위를 유지했지만 판매 증가율은 19.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계 브랜드의 높은 성장세는 GM의 볼트와 테슬라의 모델S 등 전기차 수입이 늘었고 포드의 익스플로러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 때문으로 풀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미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미국계 승용차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협회는 또 올해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미국 안전기준 인정 대수가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나는 등 특혜가 확대돼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국 맥라렌 '600LT 스파이더' 국내 출시

영국 슈퍼카 맥라렌의 공식 수입원인 맥라렌 서울은 7일 '600LT 스파이더'를 국내 출시했다.

맥라렌에 따르면 600LT 스파이더는 맥라렌의 강력한 성능을 상징하는 'LT'(롱테일)란 이름을 부여받은 2인승 컨버터블 스포츠카다.

카본 파이버와 SMC(열경화수지) 등 경량 소재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경량화를 이루면서도 견고함과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3.8 L V8 트윈 터보차저 형식의 고성능 M838TE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00마력, 최대토크 620N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324km,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초다.

판매가격은 3억1500만원부터로, 모든 차량은 영국 워킹에 있는 맥라렌 프로덕션 센터에서 수작업으로 조립해 국내에 순차적으로 입고된다.

/연합뉴스

현대차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현대차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인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속 운전 체험을 통해 급차량 출몰, 버스 정류장 무단횡단, 경사 구간 급차로 변경, 주행 중 화물낙하 등 다양한 교통사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갖췄다.

또 현대차의 안전기술인 조향력 확보가능 장치(ABS), 차체 자세유지 장치(VDC), 자동 긴급제동 장치(AEB), 졸음·운전부주의 경고장치(FCWS·LDWS)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1t 탑차를 개조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므로 운전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운전 교육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안실련 홈페이지에서 체험 신청을 하면 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자연장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